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

이정선*

| 목 차 |

- I. 머리말
- II. 문제제기
- III. 한국전쟁기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
- IV. 일본 고쿠라에서 실시된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및 본국 송환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논문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참전국 중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병한 미국이 어떠한 배경에서 대다수의 자국 전몰장병들을 1951년 1월에 건립된 유엔묘지에 안장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주요 배경으로 한국전쟁기에 미군이 최초로 작동시킨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그 일환으로 일본 항도 고쿠라(小倉)에서 실시한 전사자 신원 확인 과정을 고찰하였다. 이

* 도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과정 / zenith701_@naver.com

는 거시적 관점에서 유엔군을 주도하던 미국의 군사정책과 전쟁의 후방기지였던 일본에서의 미군 전사자 신원 감식, 그리고 유해가 본토로 송환되는 흐름을 연계 시켜 추적하려는 시도이다.

연구 방법으로 미 군사 문헌과 참전군인 기록, 미군 중심의 유엔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담당했던 일본 인류학자들의 논문을 다각도로 논고함으로서 미국, 일본, 국내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간의 공백을 보완하며 전체상을 조망하였다. 특히 그간 알려지지 않았던 고쿠라 부대의 신원 감식 및 송환 사료(史料)를 국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연구 결과 본고는 1951년 미군이 도입한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이 자국 전사자를 같은 시기에 조성된 유엔묘지에 안장하지 않은 핵심 단서임을 제시하였고, 한국전쟁이 본 방침을 미 군사상 최초로 출범시킨 역사적 전환기가 되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무엇보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일부 유엔군의 유해가 고쿠라에서 신원 확인을 거쳤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사자의 가매장과 발굴, 이송과 감식 등 제반 경위를 고찰하는 작업은 초기 유엔묘지 조성 배경의 일단을 규명하는 데 주효하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유엔기념공원은 부산뿐 아니라 한국전쟁기 한반도 전역에 걸친 전투 흐름과 미 군사 정책, 일본 항만 간의 복합적인 역학관계와 맞물려 생성된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여 본 연구는 지역 차원에서 함도부산에 소재한 유엔기념공원의 기원과 더불어 국제 전쟁사의 중요한 장(章)을 규명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유엔기념공원, 유엔군사령부, 전사자 송환, 신원 확인, 귀환

I . 머리말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이와 더불어 전쟁의 산물이자 국제연합(United Nations, 약칭 유엔)의 공식 묘지인 재한유엔기념공원(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이하 유엔기념공원)¹⁾은 2021년 부로 건립 70주년을 앞두고 있다. 본 공원은 타국의 전쟁에 동원된 다국적 유엔군의 희생을 추모하고 그들의 참전에

대한 보훈을 실천하는 장으로서 잊힌 한국전쟁의 기억을 소환한다. 따라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의의를 재조명하는 시도는 한국전쟁의 역사적 함의를 다시금 고찰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높다.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자리한 유엔기념공원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중층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 곳은 1951년 1월 유엔군사령부가 조성한 이후 한국전쟁 22개 공식 참전국 중 11개국의 유엔군 전사자 2,309명이 안장된 묘지²⁾이자 추모 공간, 그리고 유엔평화문화특구를 존립시키는 기념비적 장소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2007년 지정된 대한민국 등록문화재 제359호인 동시에 2015년부터 부산광역시에서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추진 중인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구성요소³⁾이기도 하다. 이처럼 본 공원은 한국전쟁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항도부산의 다양한 시공간적 층위를 품고 있는 역사도시경관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방대하게 축적된 한국전쟁 관련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유엔기념공원에 관한 학술적 접근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공원과 관련한 국내 및 미국, 일본 측의 문헌을 고찰한 결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에서는 1990~2000년대 초에 걸쳐 공원 시설 안내

1)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 유엔묘지 명칭의 변화에 따라 ‘유엔묘지(1951년 1월 18일~1955년 12월 14일),’ ‘유엔기념묘지(1955년 12월 15일 유엔총회 결의문 제977(X)호 채택~ 2001년 3월 29일),’ 그리고 ‘유엔기념공원(2001년 3월 30일 한글 명칭 개정 이후)’으로 분류하여 표기한다. 출처: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역사” https://www.unmck.or.kr:450/kor_un_01_1.php(검색일: 2020. 6. 22.)

2)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위의 홈페이지. Lee, Chungsun, "'Moment to be one': Senses of Place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 Dominique Vanneste & Wesley Gruithuijsen (eds.), *Value of heritage for tourism* (Proceedings of the 6th UNESCO UNITWIN Conference 2019), Leuven: University of Leuven, 2020, pp.149~151, <https://ees.kuleuven.be/unitwin2019/proceedings/>(검색일: 2020. 8. 10.)

3)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 일본 근대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2020(a), 307~ 308쪽 ;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유산 해석 전략 연구: 벨기에 ·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1, 2020(b), 159~164쪽.

및 방문객 성향 등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의 시발점은 2006년부터 3년간 유엔기념공원 관리처장을 역임한 이석조의 문헌이라고 평가된다.⁴⁾ 이를 기반으로 김선미와 차성환, 우신구 등 논자들의 저술을 수록한 민주주의사회연구소의 단행본은 공원 조성과 관리 경위, 의미를 심도 있게 고찰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다.⁵⁾ 그 후 강인철은 한국판 전사자 숭배 연구에서 유엔기념공원의 역사와 현황을 상세하게 논고했으며, 정성윤은 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유효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⁶⁾ 또한 이정선은 유엔아카이브(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에서 발굴한 1960년대 유엔 산하기관 시절의 사료를 소개한 데 이어 향후 유엔기념공원의 새로운 문화유산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 장소성(sense of place)을 고찰한 바 있다.⁷⁾ 반면에 국내 연구에서 1950년대 초기 유엔묘지의 상세한 조성 과정을 비롯하여 전사자 유해가 소속별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위를 다루지 못한 점은 향후 보완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판단된다.

미국의 경우 한국전쟁 참전 수기를 토대로 한 군사 정책과 전사자 수습, 안장 관련 학제적 분석 등 연구 저변이 폭넓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기 유엔묘지에 관한 언급은 일부 문헌에서 발견되나, 묘지 자체가 주된 연구대상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전투 정세의 배경에 국한되어 있다

4)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 일간의 백서』, 다산, 2008.

5) 김선미, 『재한 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66~106쪽. 차성환, 『한국전쟁, 유엔군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의 의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135~158쪽.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161~192쪽.

6)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397~405쪽. 정성윤,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 구조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38, 2019, 285~323쪽.

7) 이정선, 앞의 논문, 2020(a), 295~323쪽 ; 앞의 논문, 2020(b), 159~186쪽 ; Op. cit., 2020, pp.149~158.

(Cook, 1953; Martz, 1954; Keene, 2010; Potter and Deeben, 2010).

일본의 관련 연구로는 한국전쟁의 후방기지⁸⁾로서 일본 항만의 역할을 쟁점화한 이시마루(石丸)와 일본에서의 신원 확인 과정을 고찰한 모리스-스즈키(Morris-Suzuki), 그리고 1950년대 문학작품을 통해 한국전쟁기 규슈(九州) 지역의 숨겨진 역사를 조명한 가시마(加島)의 문헌이 손꼽힌다.⁹⁾ 그러나 이들 논문 역시 전시 일본 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유엔묘지 관련 서술이 불명확한 한계를 내포한다.¹⁰⁾

이러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고는 한국전쟁기에 4만 896명의 유엔군 전사자 중 미군 전몰장병이 89%인 3만 6492명¹¹⁾에 달하는 미국이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의 군 사망자를 전시 중 건립된 유엔묘지에 안장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동시에 이 글은 이석조, 김선미, 우신구 등의 논자들이 전쟁 중 미국이 자국 전사자를 본토로 송환한 데 대해 제기한 의문에 해답을 마련하려는 것이기도 하다.¹²⁾

8) 본 용어는 일본이 한국전쟁 전 기간에 걸쳐 미국의 전쟁 수행을 위한 후방기지가 되었다는 남기정의 연구를 근간으로 한 것이다. 그는 미군 기지이자 전쟁수행을 위한 요새였던 일본이 한국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 2000, 175쪽;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427쪽.

9) 이시마루 야스즈(石丸安藏), 『한국전쟁과 일본의 항만-유엔군에 대한 지원과 그 영향(朝鮮戰爭と日本の港湾-國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 『방위연구소기요(防衛研究所紀要)』 9 (3), 2007, 91~106쪽. Morris-Suzuki, Tessa, "Lavish are the Dead: Re-envisioning Japan's Korean War(死者の奢り) あらためて日本の朝鮮戦争を思い浮かべる",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1 (52), 2013, pp.1~15. 가시마 다쿠미(加島巧), 『『검은 그림』-마츠모토 세이초의 다이어니즘-평전 마츠모토 세이초:1958년』 『黒地の繪』-松本清張のダイナミズム- 評伝松本清張:昭和33年』, 『(나가사키외대논총)長崎外大論叢』 16, 2012, 1~36쪽.

10) Cook은 “당곡의 유엔군묘지”라고 명기한 반면, Morris-Suzuki는 유엔군과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산 인근 당곡의 거대한 새 묘지”로 표현한 점이 대비된다. Cook, John C.,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 1953, https://qmmuseum.lee.army.mil/korea/gr_korea.htm(검색일: 2020. 6. 25.). Morris-Suzuki, Ibid, p.5.

11)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앞의 홈페이지.

12) 한편 정성운은 유엔기념공원을 대변하는 전쟁 인식과 공간 구성의 상충 요소가 공원

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한국전쟁기에 미국이 최초로 도입한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Bodies)’의 일환으로 일본 항구도시 고쿠라(小倉)에서 실시한 미군 전몰장병의 신원 확인 배경을 추적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및 유엔아카이브(UNA) 사료, 미 군사 문헌, 미군 중심의 유엔군 전사자 신원 확인을 담당했던 일본 인류학자들의 논문을 다각도로 논고함으로써 국내와 미국, 일본에서 이루어진 기존 연구 간의 공백을 보완하며 전체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1951년 초 유엔묘지 설립기의 한반도 전투 흐름상 미 군사정책의 변곡점에 일본에서의 전사자 신원 감식과 본토 송환을 연계시켜 고찰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일본 문헌 가운데 필자는 그 동안 국내에 알려지지 않았던 규슈 고쿠라와 죠노(城野)에서 도쿄대학(東京大學) 출신의 인류학자(당시 학생)들이 개인 식별 체험에 입각하여 1952년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한국전쟁기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과정을 살펴보았다.¹³⁾ 무엇보다 현재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 일부 유해가 고쿠라에서 정밀 감식을 거친 사실을 감안할 때, 한반도에서 전사한 유엔군의 사후 제반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초기 유엔묘지 조성 배경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¹⁴⁾ 또한 전쟁 당시 신원 확인이 미군 주도 하에 부산을 거쳐 주로 일

내에 전쟁 중 사망한 미군 안장자가 없는 점에 기인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나, 부재의 근본 원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석조, 앞의 책, 2008, 217~219쪽.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9쪽.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8쪽. 정성윤, 앞의 논문, 2019, 304~305쪽.

- 13) 후루에 다다오(古江忠雄), 고우하라 시세이(香原志勢), 하니와라 가즈로(埴原和郎), 『사체의 개인 식별(死體の個人識別)』, 『인류학 잡지(人類學雜誌)』 62 (4), 1952, 198~205쪽. 가시마(加島), 앞의 논문, 2012, 13~16쪽에도 이들의 업무가 소개되어 있다.
- 14)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안장용사 찾기” https://www.unmck.or.kr:450/kor_memory_02.php(검색일: 2020. 6. 24.) 필자가 안장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4구의 무명용사(묘비번호 7922~7925)가 고쿠라에서 신원 확인을 거친 사실이 확인되며, 이 외에도 일부 유해가 1950년대 중반까지 본 과정을 통해 유엔묘지에 안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항구도시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전사자 육신을 매개로 전시 체제의 한반도와 더불어, 미군 점령 하에서 기지국가로 거듭난 일본이라는 상이한 상황에 맞물려 있던 양국 항도 간의 연계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본고는 국내 및 미국, 일본 문헌 고찰을 통해 1950년대 유엔묘지를 출발점으로 미군 전몰장병 유해 감식 작업과 본토 이송에 이르는 경위를 짚어본다. 그리하여 이 논문은 한국전쟁 전사자 신원 확인과 미군의 전시 중 유해 송환 사료를 국내 학계에 소개하여 관련 연구의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I. 문제제기

마빈과 잉글(1999)이 『피. 희생 그리고 국가-토템 신앙과 성조기』에서 피력했듯이 미군 전사자 유해는 국기(國旗)와 상징적 등가성을 지니는 몸(flagbody)인 동시에 토템 차원에서 신성화되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진다.¹⁵⁾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미국인들의 전쟁 유산에 대한 애착과 전쟁 포로에 대한 존경심이 매우 높기에, 자국 군인들의 유해와 유품도가급적 모두 발굴하여 신원을 확인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¹⁶⁾ 국내 연구에서도 군 사망자의 신원 확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호국영령이 국가가 군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윤재형, 2008: 43). 즉 군인의 육신 자체가 중요한 국가적 상징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군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안장이 주요 쟁점이 된다.

15) Marvin, C. & Ingle, D. W., *Blood Sacrifice and the Nation: Totem Rituals and the American Fla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30~31, pp.41~44, pp.53~55을 참조.

16)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軍史』, 1997, 210쪽.

한국전쟁 중 유엔군이 개성, 인천, 대구, 대전, 밀양, 마산 등에 산재하던 임시묘지를 통합해서 1951년 당시 부산 인근 당곡리에 집결시킨 유엔묘지는 항구적인 유엔군 전용 무덤이었다.¹⁷⁾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부분의 유엔군 전사자들에게 이 곳은 임시 거처에 불과했다(강인철, 2019: 400). 유엔묘지에 안장된 유해는 1951년부터 1954년 사이 한 때 1만 명을 상회했으나, 7개국의 유해는 본국으로 송환되었다.¹⁸⁾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NARA Record Group(RG) 92 문서를 조사한 결과 정전 후 유엔군묘지(United Nations Military Cemetery)에 자국의 전사자를 안장하고 있던 프랑스, 벨기에, 그리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태국, 네덜란드, 필리핀의 요청에 따라 해당 참전국의 유해가 입관 및 본국으로의 최종 송환을 위해 일본 고쿠라로 이송된 사실이 확인되었다.¹⁹⁾

한편 유엔아카이브 사료에는 한국전쟁 당시 신원미상의 미군 전사자 6구가 유엔묘지의 미국 묘역 자리에 임시 안장된 후 본토로 송환되었다²⁰⁾는 기록이 발견되어 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국

17)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4쪽. 강인철, 앞의 책, 2019, 400쪽.

18) 이석조, 앞의 책, 2008, 212~213쪽. 김선미, 위의 논문, 77쪽. 정성윤, 앞의 논문, 2019, 291쪽. Lee, Op. cit., 2020, pp.150~151.

19) Digital reproduction from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HISTORICAL REPORT-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Period of Operation 2 January 1951-15 March 1956, 이하 HISTORICAL REPORT),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p.41. 본 문서의 출처는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원본 소장) 및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화 자료)이다.

20)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Folder Date: 1960-1960, Folder Reference No.: S-0690-0005-01, Folder Title: Organization-Transfer of the Cemete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31 MARCH 1960)," p.1. 본 사료는 1960년 3월 31일 미군에서 유엔한국

(1953) 중령의 표현대로 신원미상의 미군 유해만이 전시 중 유엔묘지에 “남겨진” 것이다.²¹⁾ 킨(2010) 역시 무명용사의 유해가 유엔묘지에 안장된 사실에 관하여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나타내는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ves)”²²⁾의 일환으로 본국에 송환되지 않았다고 분석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필자는 한국전쟁 당시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미군이 타 유엔군 참전국과 달리, 어떠한 배경에서 자국 전사자들을 유엔묘지에 안장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전시 중에 자국 전몰장병의 유해를 본국으로 일괄 송환하였기에 무명용사를 제외하고 현재 공원에 안장된 39명은 1960년대 이후 사망자들이다.²³⁾

한편 영연방 전쟁묘소 관리위원회(Commonwealth War Graves Commission, CGWC) 및 터키의 경우는 오히려 타국의 전쟁에서 사망한 전사자를 현지에 안장하는 관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대조를 이룬다.²⁴⁾ 2020년 6월 25일 현재 공원에 안장된 전체 11개국 2,309명의 유엔군 중 약 70%에 가까운 1,590명이 영연방국 출신이라는 사실에서도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²⁵⁾

이처럼 선행연구가 제기하듯 현재 유엔기념공원에는 상당 비율의 영

통일부흥위원단(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UNCURK)으로의 유엔기념묘지 이양식의 왈드(Ward) 대령 연설문으로, 이정선, 앞의 논문, 2020b, 174쪽(각주 14)에도 소개된 바 있다.

- 21) Cook, Op. cit., 1953.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7~168쪽.
- 22) Keene, Judith, "Bodily Matters Above and Below Ground: The Treatment of American Remains from the Korean War", *The Public Historian* 32 (1), 2010, p.66.
- 23) 김선미, 앞의 논문, 2013, 79쪽. 정성윤, 앞의 논문, 2019, 291~292쪽, 304~305쪽. 이정선, 앞의 논문, 2020(b), 170쪽.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안장자 및 전사자 현황" https://www.unmck.or.kr:450/kor_un_01_4.php(검색일: 2020. 6. 22.).
- 24) The Washington Post, August 20, 2018, "The U.S. has brought home remains of its Korean War dead. It'll be years before we know whose remains those are." 『부산일보』 2020.6.25. 3면, '英 터키군이 미군보다 더 많은 이유는 "전사지 안장 관례".'
- 25) 이정선, 앞의 논문, 2020b, 170쪽; Op. cit., 2020, p.151, p.156.

연방국 및 터키 출신의 유엔군 전사자가 안장되어 있는 데 비해, 실질적으로 유엔군의 실체였던 미군이 전쟁 당시 대다수의 자국의 유해를 본토로 송환해 간 근본 원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그간의 미결 과제였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추적하는 필요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이석조, 2008; 김선미, 2013; 우신구, 2013).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전쟁 중 미국이 도입한 정책의 개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Ⅲ. 한국전쟁기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송환 정책’

1. 도입 경위와 배경

한국전쟁은 20세기 미국 군사사의 분수령이 된 것으로 평가²⁶⁾받고 있는데, 주요 쟁점 중 하나로 전사자 유해의 송환 및 안장과 관련된 사항을 들 수 있다. 1951년 3월 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본 방침은 해외 전투에서 사망한 자국의 군인들을 전장의 한복판에서 본토로 송환한 미 전쟁사 최초의 공식 결정이었다.²⁷⁾ 이러한 전시 중 동시 송환은 베트남 전쟁(Vietnam War), 걸프 전쟁(Gulf War) 등 향후 미국이 전투 중에 전사자들을 본격 송환하는 체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다.

NARA RG 92 파일에는 한국전쟁기에 이 같은 정책이 확립되는 경위를 입증하는 사료가 망라되어 있다. 그 중 1956년 발표된 미 영현등록(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약칭 AGRS)²⁸⁾ 보고서

26) Jervis, Robert,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4), 1980, pp.563-592. Lee, Op. cit., 2020, p.150.

27) New York Times, March 9, 1951, 'The U.S. Announces Program on Returning War dead.' Keene, Op. cit., 2010, p.66.

에는 “1951년 1월 일본 규슈 고쿠라 부대(Camp Kokura)에서 미 영헌등록 업무가 개시되면서 미 군사상 최초로 해외 전장지에서 전사자 유해 수습과 본국 송환이 시작되었다²⁹⁾”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국 중 거의 유일하게 미국이 채택한 것으로, 쿡(1953) 중령이 “미국을 포함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적대적 행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사자 유해를 대규모로 후송(mass evacuation)한 예는 없었다³⁰⁾”고 증언한 내용과도 상통한다.

이와 관련하여 슬레지(2005)는 앞서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통한 미군 전사자들의 수습과 신원 확인, 안장, 추모 과정을 다룬 저서에서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 정부가 유해의 후속 조치에 관한 의향서를 유족들에게 보낸 결과 약 69%가 본국 송환을 희망한 사실에 주목했다.³¹⁾ 한편 미 의회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이송 요구가 75%로 높아진 유족의 의견을 반영하여 1946년 5월 16일 부로 ‘타국에 매장된 유해 송환(Return of remains those who buried in foreign lands)’ 관련 사항을 미 공법(Public Law) 383호로 발표하게 되었다.³²⁾ 주요 골자는 1939년 9월

28) 영헌등록(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S) 업무는 제1차 세계대전 중인 1917년 출범했다. 그 이후 1945년 7월에는 본 조직을 계승한 AGRS가 출범했지만 당시 업무는 주로 전사자의 수색과 수습에 주안점을 두었다. Keene, Ibid, pp.62~64. Wood, W. Raymond, *Or Go Down in Flame: A Navigator's Death Over Schweinfurt*, PA: Casemate Publishers, 2013, pp.164~165.

29)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FOREWARD", "CHAPTER TWO ACTIVATION", p.34. RG 92 문서에는 ‘Return of U.S Dead from Korea’, ‘Return of the Dead Program’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30) Cook, Op. cit., 1953;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8204th Army Unit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https://armyhistory.org/8204th-army-unit-american-graves-registration-service-group/>(검색일: 2020. 6. 23.). Morris-Suzuki, Op. cit., 2013, p.5.

31) Sledge, Michael, *Soldier Dead: How We Recover, Identify, Bury and Honor Our Military Fall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5, p.150.

32)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80th congress)*, Vol. 93,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 p.7087.

3일 이후 미국 영토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었으나 열악한 전시 운송 여건상 본국으로 후송되지 못한 유해를 송환한다는 내용이었다.³³⁾ 갑작스레 발발한 한국전쟁 초반에는 본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못하였던 데다 당시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마찬가지로 전쟁터와 포로수용소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하리라는 판단 하에 자국 전사자들을 한반도의 임시 묘지에 매장했다.³⁴⁾ 그러나 한국전쟁의 정세가 결코 세계대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계획은 즉각 전시 중의 동시 송환(Concurrent Return program)으로 변경되었다(Sledge, 2005: 140).

미 영현등록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같은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유동적인 전투 정세와 더불어 적군 주둔지에 소재한 일부 임시 묘지를 신속히 옮겨야 하는 필요성이었다.³⁵⁾ 본 결정에는 유엔군이 1950년 11월 말부터 약 3주 가까이에 걸친 장진호 전투 후 북한에서 불가피하게 철수해야 했던 전세(戰勢)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³⁶⁾ 장기화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된 미군은 마침내 극동사령부 병참단(Quartermaster)³⁷⁾ 헤이스팅스(Hastings) 준장(准將)의 제안으로 1951년 초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Bodies)’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³⁸⁾

이러한 방침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 사망한 전사자를 현지에 안장하는 영연방국, 터키 등의 관습과 대비되는 점이기도 하다. 미

Sledge, Ibid, p.140.

33) United States of America, Ibid. Sledge, Ibid, p.140, p.151.

34) Sledge, Ibid, p.140. 서주석, 앞의 논문, 1997, 219쪽.

35) Cook, Op. cit., 1953.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FOREWARD", "CHAPTER TWO ACTIVATION", p.34.

36) Keene, Op. cit., 2010, pp.65~66.

37) 한국전쟁 중의 병참 업무는 1950년 9월 한반도 전역을 총괄하는 30명 규모의 단일팀에서 출발했다. Keene, Ibid, pp.64~65.

38) New York Times, Op. cit., 1951. Keene, Ibid, p.66.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Op. cit.

군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전장지에 자국 전사자들을 안장한 전례가 있으나, 이는 체계적인 송환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Sledge, 2005: 150). 또한 공법 383호가 명시하듯이 당시는 한국전쟁에 비해 한층 열악했던 기술적·물적 여건상 운송 한계로 인해 전투와 동시에 유해가 송환되지 못한 결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슬레지(2005)는 한국전쟁터의 한복판에서 미국으로 유해 송환이 이루어진 배경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요인으로 분석했다. 첫 번째는 전술한 미 영현등록 보고서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급변하는 전투 상황에 따라 많은 전사자들이 매장조차 되지 못하거나 후퇴 과정에서 임시 묘지가 북한군의 수중에 놓였기 때문이었다.³⁹⁾ 두 번째는 미국인들이 자국의 군인들을 자신들의 기원인 유럽에 안장했던 세계대전과 달리 머나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안장하는 사실에 주저함을 느낀 심리적 요인이었다.⁴⁰⁾ 마지막으로 초대 주한 미8군(Eighth United States Army) 사령관 월턴 워커(Walton H. Walker) 장군이 1950년 12월 23일 서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직후 그의 유해가 본토로 송환되자 미국 사회에서 한국전쟁에 파병된 “우리 아들도 돌려보내라(Send my boy home, too)”는 격렬한 항의가 빚발쳤다는 사실이 거론된다.⁴¹⁾ 이 같은 복합적인 상황에서 도입된 본 정책은 미국이 한국전쟁기에 자국 전몰장병을 유엔묘지에 안장하지 않고 본국으로 전격 송환해 간 결정적인 실마리로 작용한다.

이와 더불어 본 방침의 일환으로 일본 항만에서 신원 확인이 이루어진 사실도 주목을 끈다. 미군은 1950년 12월 전사자 유해 감식과 송환에

39) Sledge, Op. cit., 2005, p.140.

40) Sledge, Ibid, pp.140~141.

41) Cole, Paul, "World War II, Korean War and Early Cold War MIA-POW Issues (OUTLINED STATEMENT OF DR. PAUL M. COLE, ANALYST, INTERNATIONAL POLICY DEPARTMENT, RAND CORP. CONGRESSIONAL TESTIMONY)," 1992, p.34. Sledge, Ibid, p.141.

필요한 계획을 구상해 나갔다. NARA 사료에 의하면 관련 병력이 한반도와 일본 항구를 정찰한 결과 애초에 한반도에서 전사자 송환에 적합한 장소로 거론된 유일한 후보는 바로 부산이었다.⁴²⁾ 그러나 마르츠(1954) 대령의 증언대로 부산에 필요 설비를 조성하는 데 최소 60~9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기에 부산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⁴³⁾ 즉, 미군이 부산을 전사자 신원 확인지로 선택하지 않은 원인은 전투 흐름상 1951년 1·4 후퇴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 유해를 안정적으로 감식하고 본국으로 수송할 시설을 확보하는 데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 결과 일본 최남부 규슈 북부에 위치한 고쿠라 부대 건물이 즉시 활용 가능한 시설로 판명되었다.⁴⁴⁾ 1950년 말 당시 약 20만 명이 거주하던 고쿠라는 기존 일본군 병영 기지에 제24보병사단(Infantry Division)이 주둔⁴⁵⁾하던 함도로 인근 모지항(門司港)과 함께 부산항과의 왕래가 용이한 곳이었다(Morris-Suzuki, 2013: 7-8).

고쿠라항이 전사자 신원 확인의 주요 장소로 결정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 한국전쟁기 일본 항만의 역할을 개관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전쟁 발발 후 미군 점령 하에서 일본은 병사·물자를 공급·중계하는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항구는 해륙

42) NARA, RG 92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p. cit., 1950, "Interim report (From: HUGH MUNRO, OQMG, Washington D.C. To: Quartermaster General, Washington, D.C. 25 Dec. 1950)" p.1.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CHAPTER TWO ACTIVATION", p.34.

43) Martz, John D., "Homeward Bound", 1954, https://web.archive.org/web/20131102221004/http://qmfound.com/homeward_bound_korea.htm (검색일: 2020. 6. 22.). 가시마(加島), 앞의 논문, 2012, 13쪽에도 이러한 사실이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44) NARA, Op. cit., 1950, "Interim report", p.1. Martz, Ibid.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CHAPTER TWO ACTIVATION", p.34.

45) 고쿠라를 포함한 1950년 재일(在日) 미 점령군의 배치 상황에 관해서는 남기정, 앞의 서적, 2016, 81~91쪽을 참고.

수송의 결절점(結節點)으로서 한반도와 일본을 연결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다(石丸, 2007: 91). 패전 후 일본에서는 항만·선원 선박 관리의 민주화를 맞이하여 1949년 12월 16일 연합군 최고 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약칭 GHQ/SCAP)의 지시에 따라 주요 항구는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관리 주체를 설정했다.⁴⁶⁾

한국전쟁 초기 일본 항만의 전쟁 지원에는 항만법(港灣法)과 옛 군항 시전환법(旧軍港市轉換法)의 제정도 작용했다. 이시마루(2007)는 이 같은 법률 제정을 통해 유엔군 지원이 크게 2종류로 나뉜다고 분석했다. 첫 번째는 함정 선박의 모기지(母基地)이자 해군기지인 사세보항(佐世保港), 요코스카항(横須賀港), 구레항(呉港)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병력 및 물자의 수송 거점인 요코하마항(横浜港), 고베항(神戸港), 기타규슈항(北九州港), 시모노세키항(下關港), 하카타항(博多港) 등 상업항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항만이었다(石丸, 2007: 102). 특히 기타규슈항의 고쿠라항과 모지항은 지리적으로 한반도에 인접하여 수송 효율 면에서 최적의 항구였다⁴⁷⁾는 해석이 주목할 만하다. 즉, 법률이 정비된 일본의 항만은 기지 일본과 한반도의 전장을 잇는 원활한 이음매 역할⁴⁸⁾을 하며 부산항과 미국 본토로의 전사자 유해의 이송을 가능케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찰 결과 미군 전사자 감식 장소가 1950년 12월 28일 고쿠라 부대로 결정되었다.⁴⁹⁾ 또한 극동사령부 병참단 직할 하에 미 영현등록부대가 설치되어 전사자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Cook, 1953)했으며, 고쿠라 부대에는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식별반(Central Identification Unit, 약칭 CIU⁵⁰⁾)이 설립되었다.⁵¹⁾ 이로써 일본 고쿠라

46) 이시마루(石丸), 앞의 논문, 2007, 92쪽.

47) 이시마루(石丸), 위의 논문, 103쪽. 남기정, 앞의 서적, 2016, 134~135쪽.

48) 남기정, 위의 서적, 115쪽.

49) Cook, Op. cit., 1953.

는 한국전쟁기 미군 중심의 유엔군 신원을 확인하는 함도이자, 미군이 최초로 본격 도입한 자국 전사자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의 주요 장소로 기능한 것이다.

2. 한국전쟁기 한반도-일본 간의 전사자 이송

NARA RG 92에는 한국전쟁을 맞이하여 1951년에서 1956년까지 AGRS의 고쿠라 부대에서 이루어진 미국 전사자 유해의 본국 이송, 신원 확인, 제반 처리, 입관 및 선적 업무 내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그 중 1951년 1월 8일자 "한반도에서의 유엔군 전사자 처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맥아더(MacArthur) 총사령관이 주한 미8군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가매장된 미군 유해를 포함한 모든 자국 전사자들을 일본 모지항을 통해 고쿠라 부대로 이송하도록 지시한 사항이 확인된다.⁵²⁾ 반면에 기존의 부산 유엔군 묘지 자리(site of the present United Nations Military Cemetery in Pusan)에 유엔군 참전국 중 (1)벨기에 (2)네덜란드 (3)태국 (4)필리핀 (5)터키 (6)남아프리카연방⁵³⁾ (7)프랑스 출신의 전사

50) CIU의 기원은 1946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 설립된 중앙 식별 지점(Central Identification Point, CIP)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 조직은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국 포트 리(Fort Lee)에서 전사자 신원 확인을 수행할 CIU를 출범시켰다. Sledge, Op. cit., 2005, p.100. Keene, Op. cit., 2010, p.65. Wood, Op. cit., 2013, p.186.

51) Cole, Paul M., "Three: Efforts to Recover and Account for Korean War Casualties." *POW/MIA Issues Volume 1, The Korean War*, Santa Monica, CA: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4, p.62.

52) NARA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From: MacArthur, Command of General, To: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8 Jan. 1951)", p.1.

53) 오늘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전신은 한국전쟁 당시 남아프리카연방(The Union of South Africa, 1910~1961년)이었다.

자를 통합(consolidate)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한 점이 괄목할 만하다.⁵⁴⁾ 또한 문서에는 (1) 호주, 영국, 뉴질랜드 (2) 캐나다 국적의 전사자들은 현재 묘역에 남겨 두도록 허용한다는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⁵⁵⁾

그 외에도 부산 유엔군 묘지에서 유엔군 전사자를 발굴하고 재매장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참전국 현장 지휘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발견된다.⁵⁶⁾ 이러한 지침에서 부산에 전사자를 안장하는 참전국들과 차별화를 두어 자국의 유해를 본국으로 공식 송환하려는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1951년 1월 8일에 발송된 본 서한은 초기 단계나마 김선미(2013: 97)가 제기한 송환자와 안장자를 가르는 기준의 일단을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전사자가 고쿠라로 이송되기까지 우선 한반도 전역에서 이루어진 유해 수습 및 이동의 개략적인 흐름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각지에서 수습된 유해는 지점별로 안치되었다가 21톤 트럭에 실려 제148영헌등륙중대에 도착한 후 10군단(X Corps)과 9군단(IX Corps)의 시신 집결지인 홍천으로 보내졌다.⁵⁷⁾ 이어서 홍천에서 원주로 이송된 유해는 손가락 끝이 방부 처리되고 지문이 채취되었다.⁵⁸⁾ 다시 원주에서 시신은 냉동 시설이 갖추어진 철도차량(reefers)을 통해 부산으로 이동된 것으로 전해진다.⁵⁹⁾ 부산에서 전사자 유해는 선편을

54) NARA,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Ibid, p.1. 본 서한의 발송 시점이 1951년 1월 8일인 점에서 부산의 유엔군묘지란 10일 후 건립이 시작될 예정인 현재 유엔기념공원이 아닌, 부산에 소재한 별도의 묘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55) NARA,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Ibid, p.2. 본문에 영연방국인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전사자들의 기존 묘역의 위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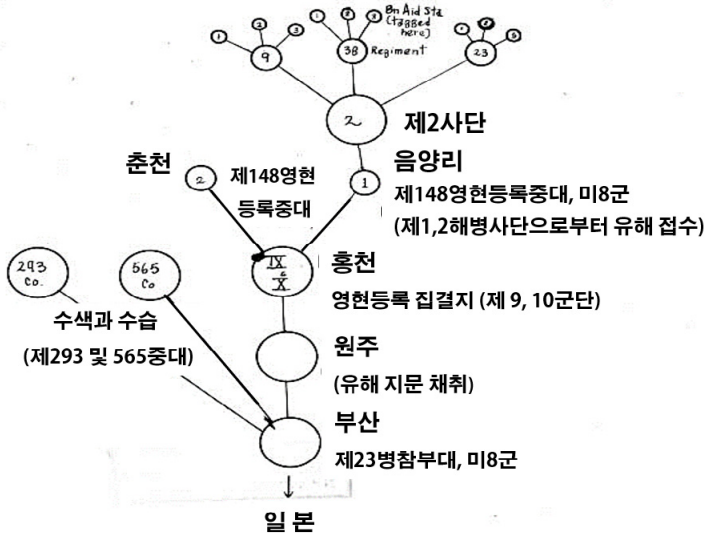
56) NARA,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Ibid, p.2.

57) Quartermaster Service Platoon in Action [Historical Manuscripts Collection (HMC) under file number 8-5.1A BA 60] <https://history.army.mil/documents/Korea/KW-MHD/BA-60/ba-60.htm>(검색일: 2020. 6. 24.).

58) Quartermaster Service Platoon in Action, Ibid.

59) Quartermaster Service Platoon in Action, Ibid. Sledge, Op. cit., 2005, p.41.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 이동 경로 (한반도-일본)



작성자:

제2보병사단

토마스 린치 (Thomas F. Lynch)

<그림 1> 한국전쟁기 한반도-일본 간의 전사자 이송 흐름⁶¹⁾

통해 일본 고쿠라로 운반되었으며, 1952년 4월 이후에는 영등포, 원주, 부산에서 항공편으로 고쿠라와 20마일 떨어진 아시아(芦屋) 공군기지 (Ashiya Air Force Base)로 후송되었다.⁶⁰⁾ <그림 1>은 제2보병사단의 영현등록 업무에 근거하여 도식화한 자료로, 한반도 임시 묘지에서 유해가 선편을 통해 일본으로 후송되는 흐름의 한 단면을 나타낸다.

60)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AIR EVACUATION OF DECEASED (OPERATION TEST)," p.25.

한편 고쿠라에서의 개인 식별과 이를 위한 미군 유해 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51년 1~2월은 당곡리에서 유엔묘지 건립이 한창인 시기로, 향후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참전국 전사자들이 이 곳에 안장될 예정이었다.⁶²⁾ 이어서 유엔묘지 조성과 거의 동시에 일본에서 실시된 유엔군 전사자 신원 확인 과정에 관해 검토하기로 한다.

IV. 일본 고쿠라에서 실시된 미군 전사자 신원 확인 및 본국 송환

미군의 새로운 방침에 따라 1951년 1월 2일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해 선편을 통해 일본 기타규슈로 이송된 첫 대상은 인천 임시묘지에서 발굴된 864구의 유해였다.⁶³⁾ AGRS 인력들은 이틀간 유해를 트럭에 실어 고쿠라 부대로 이송했다.⁶⁴⁾ 1월 2일 당일에는 고쿠라 부대에 구역본부(Zone Headquarters)가 활성화되면서 현장운영부서(Field Operations Section)가 설립되었다.⁶⁵⁾ 그로부터 약 3주 후 1월 22일 병참 본부 소재지인 미 텍사스(Texas)주 포트 리(Fort Lee)에서 CIU가 도착하여 유해 감식은 29일에 시작되었다.⁶⁶⁾ 1월 말에는 4,453구의 시신이 접수⁶⁷⁾되

61) Quartermaster Service Platoon in Action, Ibid.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8쪽. 이해를 돕기 위해 원 그림의 내용을 필자가 번역했다. (○안의 번호는 소속 부대)

62) Cook, Op. cit., 1953.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CENTRAL IDENTIFICATION UNIT MISSION AND FUNCTIONS", p.16.

63) Cook, Ibid. Martz, Op. cit., 1954. NARA, Ibid, HISTORICAL REPORT,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p.38.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Op. cit. Cole, Op. cit., 1994, p.62.

64) Keene, Op. cit., 2010, p.65.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Ibid.

65) Martz, Op. cit., 1954.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FOREWARD."

66) Martz, Ibid. NARA, Ibid, "FOREWARD."

67) Cole, Op. cit., 1994, p.62.



<그림 2> 고쿠라 CIU에서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인류학자들⁷⁰⁾

었고, 그 후 미군 유해는 AGRS에서 엄격한 감식과 송환 심사를 거쳤다.

당시 고쿠라 부대에서 개시된 전사자 신원 확인 및 유해 감식 업무에는 극동사령부와 미 전역에서 파견된 사체 방부처리 기술자(embalmer)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⁶⁸⁾ 감식 팀에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활동한 유럽 출신의 인류학자 1명과 미국 출신의 인류학자 2명, 그리고 도쿄대학 출신의 젊은 일본인 인류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Martz, 1954; Keene, 2010; Morris-Suzuki, 2013). 이 중 일본인 인류학자들은 하나와라 가즈로(埴原和郎)와 후루에 다다오(古江忠雄), 그리고 고우하라 유키나리(香原志勢)였다(加島, 2012: 13-16). 또한 모지항에서도 다양한 인력들이 전사자 관련 업무에 참여했다.⁶⁹⁾

우선 CIU에서는 기술자 팀이 유해 감식에 필요한 정밀조사를 실시했다(<그림 2>). 이 과정에서 지문이 채취되고 치과차트가 작성되었으며

68) Martz, Op. cit., 1954.

69) Morris-Suzuki, Op. cit., 2013, pp.4-8.

키, 체중, 머리카락 색, 피부색 등 해부학적 특징이 세밀히 기록되었다.71) 또한 전신의 상처자국, 문신, 뼈의 세부 상태도 촬영되었다.72) 이를 통해 인류학자들은 전사자의 인종과 나이를 판정하였다.73)

이와 관련하여 하니와라, 후루에, 고우하라가 유엔군 전사자의 개인 식별을 기반으로 1952년에 발표한 논문 역시 고쿠라 부대의 CIU에서 이루어진 감식 작업의 양상을 가늠하는 데 유용한 단서를 제공한다.74) 그들은 본 문헌에서 연령 추정(年齡推定)이 신원 감식 중 가장 중요한 사항임을 강조하며 인종별로 상이한 추정 방식에 관한 주의사항도 언급하고 있다.75) 무엇보다 세 인류학자들이 “CIU에서의 작업은 기존 인류학자가 실험실에서 담당하는 학문적 개인 식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나, 방대한 절차(mass procedure)상 성심을 다해 주도면밀히 실시한 승고하고 인도적인 문화 사업의 실체”76)로 기술한 점이 괄목할 만하다. 본 대목에서 인류학자들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전쟁 전사자들의 유해와 마주하며 신원 확인에 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NARA RG 92의 미 영현등록 보고서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듯이 고쿠라 부대에서 정밀 감정을 마친 미군 유해는 방부처리 및 입관을 거쳐 성조기에 둘러싸인 후 송환 준비를 마쳤다(<그림 3>).77) 그리하여 최

70)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REMAINS ARE PROCESSED BY SKILLED ANTHROPOLOGISTS."

71) 후루에(古江), 하니와라(埴原), 고우하라(香原), 앞의 논문, 1952, 199~200쪽. Martz, Op. cit., 1954. NARA, Ibid, "CENTRAL IDENTIFICATION UNIT MISSION AND FUNCTIONS", p.17,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p.38. Cole, Op. cit., 1994, pp.62~66.

72) NARA, Ibid, p.17, p.38. Martz, Ibid. Cole, Ibid, pp.62~66.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Op.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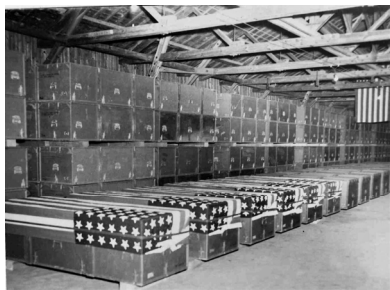
73) NARA, Ibid, p.17. Martz, Ibid.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Ibid. 가시마(加島), 앞의 논문, 2012, 14쪽.

74) 가시마(加島), 위의 논문, 14쪽에도 이들 3명의 공동 논문이 소개되어 있다.

75) 후루에(古江), 하니와라(埴原), 고우하라(香原), 앞의 논문, 1952, 200~203쪽.

76) 후루에(古江), 하니와라(埴原), 고우하라(香原), 위의 논문, 205쪽.

초로 신원이 확인된 50여 구의 미군 전사자 유해가 철도편으로 요코하마로 운반된 후 1951년 3월 11일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를 향해 출발했다.⁷⁸⁾ 요코하마항, 모지항 등 유해가 본국으로 송환될 때 일본 항구의 선체 주변에서는 국기(國旗)와 동일시되는 신성한 대상(Marvin & Ingle, 1999: 30-31)으로서 군 전사자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기념식(shipside ceremony)이 엄숙히 거행되었다(<그림 4>).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52년 4월 1일에는 고쿠라에 접수된 약 1만 6000구의 유해가 미국으로 운송된 후 본토 내 유족들에게 인도되었다.⁷⁹⁾



<그림 3> 성조기에 둘러싸여 송환 대기 중인 미군 전사자의 관⁸⁰⁾



<그림 4> 모지항에서 개최된 미군 전사자 유해의 송환기념식⁸¹⁾

이상의 내용은 한국전쟁기 고쿠라에서 이루어진 미군 중심의 유엔군 전물장병 신원 확인과 본국 송환 등 전사자의 대략적인 이동 경로를 나

77) Martz, Op. cit., 1954.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Op. cit.

78) Martz, Ibid.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p.39.

79) Cook, Op. cit., 1953. 우신구, 앞의 논문, 2013, 168쪽.

80) NARA, Op. cit., 1956, HISTORICAL REPORT, "FIELD OPERATIONS SECTION MISSION AND FUNCTIONS", p.19, "CASKETED REMAINS IN FLAG DRAPED SHIPPING CASES AWAIT SHIPMENT."

81) NARA, Ibid.,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SHIPSIDE CEREMONY MOJI PORT FOR US REMAINS."

타낸다. 미·일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부산항과 한반도는 전사자 유해를 매개로 일본 항만과 긴밀히 연결되었다. 특히 한국전쟁은 미 군사상 최초로 치열한 전투의 한가운데에서 전사자의 동시 송환 정책을 본격 출범시킨 역사적 전환기가 되었으며, 이와 연동된 항도 부산과 고쿠라는 한반도와 일본, 미국을 잇는 유해 이송과 감식, 송환의 주요 통로이자 무대였다는 사실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 대다수의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은 원인을 규명하고자 미군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최초로 도입한 자국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그 배경이 된 일본 고쿠라의 유엔군 전사자 신원 확인 과정을 추적하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국내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종합하여 전체상을 조망하고자 했다. 그 결과 미국이 한반도와 일본을 연계하여 실시한 전투 중 동시 송환 정책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한 의문, 즉 미군이 한국전쟁기에 사망한 자국 전사자의 시신을 본토로 이송한 배경의 결정적인 추동력으로 작용했음을 밝혀냈다. 따라서 오늘날의 유엔기념공원은 1950년 말 중공군 참전으로 인해 유엔군이 후퇴하던 한반도 전투 흐름상 변곡점을 맞이한 미 군사 정책과 1951년 당시 한국전쟁의 후방기지였던 일본 항만 간의 복합적인 역학관계 하에 생성된 산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전쟁 초기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이 일으킨 자장(磁場)이 1950년대 유엔묘지의 운영과 현재까지 어떠한 힘으로 작용해 왔는지에 관한 고찰이 요구된다. 2007년 이후 국

제 규모의 ‘턴투워드부산(Turn Toward Busan)’ 추모식이 거행되고 한국전쟁기 미군 유해 송환 및 유엔군 안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이정선, 2020b: 178)을 감안할 때, 유엔기념공원에서 전사자 육신을 둘러싼 영속적인 기억 행위는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유해를 발굴하여 본국으로 송환하고 유족들에게 인도하는 작업은 군 전사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국가의 당위적 의무임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전사자 유해의 송환은 미 전사자 뿐 아니라 모든 국가의 입장에서 타국에 안장되어 있는 자국 전몰장병에 대한 예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의 자장은 전사자의 국적이나 전쟁, 시공을 초월한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로는 미군 외에도 1950년대 중반까지 유엔묘지에서 대규모로 진행된 유엔군 참전국별 전사자의 본국 송환 원인과 배경을 추적하는 연구가 본격화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무엇보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1951년 1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친 유엔묘지의 상세한 조성 과정을 살펴보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한반도와 일본, 미국을 잇는 전사자의 이송 흐름에 관해서는 산발적인 NARA 문서(RG 550, 554) 및 극동군주일군수사령부(Japan Logistical Command) 자료 등 광범위한 사료에 대한 면밀한 고증도 필요하다.

종합하여 이 연구는 부산에 소재한 유엔기념공원을 문제의식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국과 일본의 사료·문헌 고찰을 통해 그간 국내에서 규명되지 않은 국제 전쟁사의 중요한 장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했다. 현 단계에서 본고는 전사자 송환 과정에 관한 사료 분석이 충분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나, 최초로 소개하는 1951년 1월 부산 유엔묘지의 안장자 및 송환자 사료와 고구라 부대에서의 유해 감식 관련 논문,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은 기존 연구사의 공백을 보완하여 국내 학계에 유용한 기여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하여 본 논문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타자(他者)인 유엔군 전사자들의 참전과 희생의

현재적 의미를 성찰하고 전쟁의 상흔 속에 잊힌 항도부산의 현대사를 조명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사료

Cole, Paul M., "World War II, Korean War and Early Cold War MIA-POW Issues (OUTLINED STATEMENT OF DR. PAUL M. COLE, ANALYST, INTERNATIONAL POLICY DEPARTMENT, RAND CORP. CONGRESSIONAL TESTIMONY)," 1992.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Interim report (From: HUGH MUNRO, OQMG, Washington D.C. To: Quartermaster General, Washington, D.C. 25 Dec. 1950), "HISTORICAL REPORT-HEADQUARTERS, AMERICAN GRAVES REGISTRATION SERVICE GROUP, 8204th ARMY UNIT APO 3 (Period of Operation 2 January 1951-15 March 1956), "FOREWARD," "CENTRAL IDENTIFICATION UNIT MISSION AND FUNCTIONS," "REMAINS ARE PROCESSED BY SKILLED ANTHROPOLOGISTS," "FIELD OPERATIONS SECTION MISSION AND FUNCTIONS," "CASKETED REMAINS IN FLAG DRAPED SHIPPING CASES AWAIT SHIPMENT," "AIR EVACUATION OF DECEASED (OPERATION TEST)," "CHAPTER TWO ACTIVATION," "CHAPTER III OPERATIONAL ACTIVITIES," "SHIPSIDE CEREMONY MOJI PORT FOR US REMAINS."

_____, (Electronic resource.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2005),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Series),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2)/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Disposition of United Nations dead in Korea (From: MacArthur, Command of General, To; Commanding General, Eighth Army, 8 Jan. 1951)."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Folder Date 1960-1960, Folder Reference No. S-0690-0005-01, Folder Title: Organization-Transfer of the Cemetary (sic) from the 142nd Quartermaster Battalion of the United Kingdom to UNCURK, "FULL TEXT OF COL. WARD PAC COMMANDER SPEECH (31 MARCH 1960)."

United States of America, *Congressional Record (Proceedings and debates of the 80th congress)*, Vol. 93,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47.

2. 저서 및 논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 김선미, 『재한유엔기념공원의 조성 경위와 관리의 성격』,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 남기정, 『한국전쟁과 일본: '기지국가'의 전쟁과 평화』, 『평화연구』 9, 2000.
- _____, 『기지국가의 탄생: 일본이 치른 한국전쟁』,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軍史』 35, 1997.
- 우신구, 『유엔기념공원의 형성과정과 공간구조』,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 윤재형, 『軍사망자 신원확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이석조, 『(젊은 영혼들과 함께 한) 천 일간의 백서』, 다산, 2008.
- 이정선,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 근대문화유산 사례 고찰을 통한 시론적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21-1, 2020(a).
- _____,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유산 해석 전략 연구: 벨기에 ·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1, 2020(b).
- 정성윤,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 -묘역의 공간구성과의 미구조를 중심으로-』, 『함도부산』 38, 2019.
- 차성환, 『한국전쟁, 유엔군 그리고 유엔기념공원의 의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石丸安藏, 『朝鮮戦争と日本の港湾-國連軍への支援とその影響-』, 『防衛研究所紀要』 9 (3), 2007.

加島巧, 『『黒地の繪』-松本清張のダイナミズム- 評伝松本清張:昭和33年』, 『長崎外大論叢』 16, 2012.

古江忠雄, 香原志勢, 埴原和郎, 『死體の個人識別』, 『人類學雜誌』 62 (4), 1952.

Cole, Paul M., "Three: Efforts to Recover and Account for Korean War Casualties," *POW/MIA Issues Volume 1, The Korean War*, Santa Monica, CA: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1994.

Jervis, Robert, "The Impact of the Korean War on the Cold War,"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4 (4), 1980.

Keene, Judith, "Bodily Matters Above and Below Ground: The Treatment of American Remains from the Korean War," *The Public Historian* 32 (1), 2010.

Marvin, C. & Ingle, D. W., *Blood Sacrifice and the Nation: Totem Rituals and the American Fla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Morris-Suzuki, Tessa, "Lavish are the Dead: Re-envisioning Japan's Korean War (死者の奢り あらためて日本の朝鮮戦争を思い浮かべる)", *The Asia-Pacific Journal: Japan Focus* 11 (52), 2013.

Potter, Constance and Deeben, John, "Care for the Military Dead (Chap. 67)." In Bradford, James C. (ed.). *A Companion to American Military History*, Vol II, Wiley-Blackwell, 2010.

Sledge, Michael, *Soldier Dead: How We Recover, Identify, Bury and Honor Our Military Falle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2005.

Wood, W. Raymond, *Or Go Down in Flame: A Navigator's Death Over Schweinfurt*, PA: Casemate Publishers, 2013.

3. 신문기사

『부산일보』, 2020.6.25.3면, ‘英 터키군이 미군보다 더 많은 이유는 "전사지 안장 관례.”’

New York Times, March 9, 1951, 'The U.S. Announces Program on Returning War dead.'

The Washington Post, August 20, 2018, 'The U.S. has brought home remains of its Korean War dead. It'll be years before we know whose remains those are.'

4. 인터넷 자료

사이버 유엔기념공원, "안장용사 찾기" https://www.unmck.or.kr:450/kor_memory_02.php(검색일: 2020. 6. 24.)

_____, "안장자 및 전사자 현황"

https://www.unmck.or.kr:450/kor_un_01_4.php(검색일: 2020. 6. 22.)

_____, "역사" https://www.unmck.or.kr:450/kor_un_01_1.php(검색일: 2020. 6. 22.)

Cook, John C., "Graves Registration in the Korean Conflict," The Quartermaster Review, VA: Army Quartermaster Museum. 1953, https://qmmuseum.lee.army.mil/korea/gr_korea.htm(검색일: 2020. 6. 25.)

Lee, Chungsun, "'Moment to be one': Senses of Place in The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in Dominique Vanneste & Wesley Gruijthuisen (eds.), *Value of Heritage for Tourism* (Proceedings of the 6th UNESCO UNITWIN Conference 2019), Leuven: University of Leuven, 2020, pp.149~158, <https://ees.kuleuven.be/unitwin2019/proceedings/>(검색일: 2020. 8. 10.)

Martz, John D., "Homeward Bound," The Quartermaster Review. VA: Army Quartermaster Museum. 1954, https://web.archive.org/web/20131102221004/http://qmfound.com/homeward_bound_korea.htm(검색일: 2020. 6. 22.)

Quartermaster Service Platoon in Action [Historical Manuscripts Collection (HMC) under file number 8-5.1A BA 60] <https://history.army.mil/documents/Korea/KW-MHD/BA-60/ba-60.htm>(검색일: 2020. 6. 24.)

The National Museum of the United States Army, "8204th Army Unit," <https://armyhistory.org/8204th-army-unit-american-graves-registration-service-group/>(검색일: 2020. 6. 23.)

| Abstract |

What is the background for the US soldiers' not being interred in the United Nations Cemetery during the Korean War?

Lee, Chung-Sun

This study addresses the research question of why the United States (US), which dispatched the largest number of United Nations (UN) combatants during the Korean War, did not bury its war dead at the UN Cemetery in Tanggok, near Busan. The research is an outcome of tracking back to the identification process of the US soldiers at the Kokura port of Japan, aligned with the US 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the bodies of the fallen soldiers. In a broad sense, it is an attempt to make a trilateral link among the evacuation process conducte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identification of the American soldiers in Japan as a rear base of the war, and the flow of repatriation of US war dead to their homeland.

Through carrying out the multi-archival analysis of the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documents, United Nations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Section (UNA) historical reference, US military articles, veterans' records, and Japanese anthropologists' paper, this study is believed to fill the gap in the existing studies. Furthermore, it examines the overall status of the research conducted in the US, Japan, and Korea. In particular, this research would be the first notable work to introduce the identification process held in Camp Kokura in the academic disciplines in Korea.

Research findings illustrate that the US military's policy to repatriate remains during wartime operations was a pivotal clue to the UN Cemetery

and that the Korean War was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military history of the US. Therefore,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oday's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is a by-product created at the intersection of US military policy and Japanese ports under the influence of the multilateral dynamics of the conflict.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this timely study is expected to lay a foundation for the origin of the UNMCK located in Busan.

Keywords: United Nations Memorial Cemetery in Korea (UNMCK), United Nations Command, 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Bodies, Identification of the War Dead, repatriation